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유신공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



석원정\_ 숙명국어국문학과 77학번, 숙명민주동문회 회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2002년),  
외국인노동자인권위원 대표(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내가 대학생이 되던 해는 철권 유신정권의 막바지인 1977년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은 그 시절에 꼭 들어맞는 표현이다. 1978년 9월 말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항소심에서 1년형을 받고 이듬해 1979년 7월에 카터 당시 미대통령의 방한 덕분에 석방되었다)되기 전까지의 내 학창생활은 눈치 보기, 숨어 다니기, 입 다물기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멋모르던 대학 신입생 시절에는 대학공부도 그런 대로 했고 몇 번 미팅에도 나가고 담배도 술도 생각조차 못하던 그런대로 참하고 순진(?)한 대학생이었다. 아마 그대로 대학생활을 지속했다면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 중의 하나는 선택했을 것이다(아버지는 내가 글 쓰는 작가가 되기를 원하셨고 어머니는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셨다). 얼마나 뭘 모르고 순진했는지 1977년 여름경, 교외 탈춤서클 사람들과 '모처'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철역에서 '모처'를 찾지 못해 근처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았을 정도다. 그 '모처'가 어딘가 하면 '새벽의 집'이라고 고 문익환 목사님과 사모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었다. 나는 그곳이 유치원이라고 들었고, 행사에서 간단하게 공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고, 파출소니까 유치원을

잘 알 것이라고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물어본 것이다. '새벽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 관계자(누군지는 모른다)와 얘기하던 끝에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았다는 얘기를 했다. 내 말을 들은 그 분의 표정이라니! 내 선배들도 설마 내가 파출소에 가서 집을 수소문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리라! 나이 어린 후배에게 보안의식을 심어준답시고 집을 짹짹 주기도 그렇고, 어찌되었건 공개조직에서 하는 활동인데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에는 후배 교양시키기도 참 힘든 시절이었다. 겨우 꼬맹이티를 벗어나고서부터는 선배가 주의 주는 말귀를 알아듣고, 더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 시기는 박정희 정권 말기이다 보니 그간의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똥물을 뒤집어쓴 서너 명의 동일방직 여공들이 주먹을 꼭 쥐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흑백의 사진', 1979년 김경숙 열사의 죽음 후 남아 있는 YH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농성이 강제해산되고 찾아갔던 농성 현장에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던 농성자들의 신발짝들. 나는 이렇게 터지는 사건들 속에서 한국사회를 배웠고, 그리고 배운 대로 실행하고자 했다. 동일방직 여공들의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돌아와 유인물을 교내에 뿌리고, 1978년 6월 광화문 대학연합시위에서 타학교 선배가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의분이 치솟아 교내 여기저기에 반정부 낙서를 그려대고... 당시의 나는 탄탄한 이론으로 무장된 학생운동가는 아니었고(지금에야 털어놓는데 나는 사회과학 공부하기가 참 싫었다.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 몸을 던지던(?) 스타일이었다. 그러다가 1978년 9월,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던 동일방직 문제로 열린 기도회장에 경찰이 난입하자 2층에서 진짜 몸을 던지기도 했다! 개떼처럼 몰려드는 경찰을 피해 베란다쪽으로 피신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뛰어내렸다. 고작 19살짜리 솜털이 보송송했던 철없는 여자였던 나는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나 혼자 베란다에 남게 되었고 경찰이 베란다로 달려들었다. 경찰이 뻗친 손끝의 촉감을 등줄기에 느끼는 순간 나는 뛰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낙법도 모르면서 뛰어내렸으니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뛰어내리면서 손으로 땅을 짚었더니 그 충격으로 손바닥과 손목 관절 이음부분의 살이 터지면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종로 5가 일대에 짹 깔린 경찰들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없었다. 어떤 남학생의

손수건으로 손을 싸매고 몇몇이 근처 약국에 들어갔다. 약사에게 손을 보였더니 약사가 함께 일하는 여자에게 서터 내리라고 하더니 얼른 약제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손을 보더니 봉합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손으로 바깥을 다니다가는 잡히기 십상이다 싶어서 여기서 봉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약사 왈, “할 수는 있는데 마취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끔찍한! “못하겠다, 병원을 가겠다”고 했더니 약사 또다시 왈, “병원에 갔다간 잡힐 텐데”. 그래도 마취제 없이 수술 받을 용기는 없어서 피가 흐르는 손바닥을 품속에 숨긴 채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터진 부분을 꿰맸다. 당시 기독교회관에 나를 데리고 갔던 선배는 경찰에게 흠씬 얻어터졌다.

당시 대학 내에는 정보과 째새가 상주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었고, 조금이라도 사회의식을 고취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활동은 일일이 감시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을 경찰에 넘기던 시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한 선배는 데모를 치르고 교수집으로 피신했는데 교수가 경찰을 불러서 넘겼다. 그리고 나를 경찰에 넘긴 사람도 교수였다. 또 학생들이 서클을 만들려고 하면 꼭 지도교수가 필요했다. 사회과학 공부를 하려는 서클에서는 지도교수 찾기가 별따기였다. 학교와 경찰 측의 사찰을 피하려면 지도교수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교수일수록 사회적 성격을 띤 서클의 지도교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혹시 하더라도 이리저리 간섭이 만만찮았다. 당시 학생운동권에서는 여름방학이면 농활을 갔었는데 농활도 경계대상이었다. 농활을 가려면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걸 얻기 위한 구구절절이 란! 그렇게 해서 농활을 가면 이번엔 시골에서 난리가 나곤 했다. 이장이며 관할 경찰서에서 나와서 어디서 온 누구들이며 왜 왔으며 인솔자는 누구며 지도교수는 누구며 등등을 캐거나 “우리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필요 없다”며 내쫓으려고까지 하기도 했다.

나는 두 종류의 농활을 했는데, 학교 사회과학 서클에서 일하러 가는 농활과 대학 외부 탈춤 서클에서 가는 농활이었다. 60년대 이후 급격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던 산업화 과정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던 한 수단으로서 대학기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던 탈춤서클은 대개의 대학에서 반정부활동을 양산하는 중요한 터전이었다. 나 역시 탈춤서클활동을 하면서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고, 여러 대학의 탈춤꾼들로 구성된 대학 외부의 서클에서도 활동

하였다. 거기서는 사회과학 서클들에서 하는 농활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농활을 했다. 일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농촌공동체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하는 활동이었는데 때로는 순회공연을 겸하기도 했다. 그 농활에서는 농활을 마치기 전날쯤 되면 마을잔치를 하는데, 우리들은 장구며 북이머를 둘러매고 마을 사람들의 잔치를 흥겹게 해주는 ‘기쁨조’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을 풍미했던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시골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기쁨조들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요들을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하면 마을사람들은 좋아라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댄다. 그런데 서너 곡이 나오면 영락없이 마을 이장이니 하는 자들이 끼어들어서 박수를 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를 부른다. 그러면 흥이 막 오르려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정말 순식간에) 차악 가라앉으면서 다같이 암전히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만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이어지는 노래 역시 이른바 건전가요, 내버려두면 끝없이 건전가요가 이어지면서 잔치는 파장이 된다. 건전가요에서 어깨춤을 나올 수 없고 걸판지게 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자는 잔치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우리는 장구를 쳐주는 한편 틈을 보아 노래와 노래 사이에 재빨리 끼어들어서 성주풀이-진주난봉가-진도이리광 등등을 실 틈 없이 불러댄다.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면 온갖 종류의 노래에 능통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회과학 서클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와 노래연습을 함께 해야 했다. 선배가 아무개! 하고 지적하는 즉시 노래가 나오도록 하는 연습도 했다.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고서 농활에 임했지만 농활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콤플렉스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생기곤 했다. ‘민중 속으로’를 부르짖으며 농활에 임했던 학생들이라 대학생스러운 말투나 옷차림은 당연히 교정 대상이었다. 그런데 대처의 여대생(당시 여대생의 위치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었다)이었던 나는 안경 쓰고 하얀 피부에 가냘픈 손마디가 늘 불만이었다.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처음 농활을 갔던 2학년 여름, 내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집수리 하는 아저씨의 미장일 보조였다. 보조도 뭘 알아야 했을 텐데 나는 그저 잘 발리놓은 시멘트 주위나 맴돌면서 근처 풀이나 뽑는 정도였다. 그런데 풀을 뽑으면서 문득 내 손이 너무 곱구나! 하는 것이 새삼스레 가슴을 찢었고 순간적

으로 내 손을 발라놓은 시멘트 속으로 푹 집어넣었다. 거칠어지라고 한 것이었다. 이 콤플렉스는 이후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찾아가 공연을 할 때나 공장에 취직했을 때나 언제나 나의 신경을 긁었다. 구로동에 있는 백열등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때 여름이 되어 날이 더워지면 땀이 배어난 손이 더 예뻐 보인다는 말을 옆자리의 여공이 할 때, 그리고 푹푹해 보이니(그 시절 안경 쓴 사람은 웬지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나빠진 것처럼 보일 때였다)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해 보는 게 어떠냐고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말할 때, 나는 내 손마디가 굵지 않고 손이 거칠지 않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시력을 많이 원망했다.

1978년 9월, 학내 반정부 유인물과 낙서 사건으로 나는 구속되었다. 당시의 서대문구치소에서 이대 최정순 선배, 박인혜 선배, 전유희 선배 등 몇 사람과 나중에 서대문으로 이감 왔던 서울여대 김숙임 선배, 이연숙 선배, 박희옥 선배, 고려대 이해자 선배들을 만났다. 이대 전유희 선배만 3학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4학년이었다. 막내(나는 만 19세 법률상 미성년자인 상태로 기소가 되다 보니 내게는 긴급조치9호와 소년법이 적용되었다)인 나는 구치소에서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했다. 구치소 생활이 몇 개월 되었을 즈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남사에서 양심수들의 합방을 요구하는 소란이 벌어졌고, 그 결과 남사에서는 양심수들끼리 합방이 되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사에서도 합방이 되었고, 그때 있던 서울여대 선배들, 이해자 선배, 숙대 두 사람, 이렇게 한 방을 쓰게 되었다. 우리는 합방 첫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배식반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찬 개선하라고 소란을 벌이고 단식을 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유난스레 '줄 맞춰!' 를 강조하던 어떤 간수에게 반항(그건 정말 반항이었다)의 뜻으로 일렬로 맞춰서 목욕하러 가면서 일부러 옆으로 빠져나와 걸어가다가 잔소리를 툇통 듣기도 했다.

1979년 인권외교를 부르짖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방한했다. 박정희 정권에 압력을 가했는지, 아니면 과천에서 알아서 긴다고 취한 조치인지 하여튼 그해 7월 17일 나는 가석방으로 출감했다. 출감하고 잠시 집에서 얌전히 있었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말 문제였다. 긴급조치9호가 워낙 서슬 퍼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그 시절에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감옥에 갔다 오는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짙은 어둠이었기에 언젠가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은 정말 꿈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긴급조치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만 해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었던 것이었으니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 상황이었기에 학교에서는 쫓겨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1980년대에 학생운동하다가 쫓겨난 학생들이야 학원선생님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았었다. 이러저러해서 찾은 직장이 출판사였다. 그 출판사의 사장님은 동아투위에 속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난 선배들이 주로 투신한 곳이 출판계와 서점이었다. 1980년대 사회과학 서적의 부흥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긴급조치9호가 선포되고 30년이 되는 2005년

박정희는 죽었고,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그 옛날을 가벼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있어야 정상일 터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유신공주는 그 시절을 그렇게 넘길 수 없게 만든다. 나는 아직도 사진찍기를 기피하는 나의 습성에서,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선후배들에게 죄악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 그대로 두었으면 문자 그대로 이 나라의 동광들이 되었을 수많은 젊은 인재들의 신산했던 삶들, 돌맹이처럼 이리저리 채이면서 나뒹굴던 노동운동가들, 농민운동가들의 삶들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유신공주가 유신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너희 삼형제가 청와대에서 공주와 왕자로 18년을 살고 있을 때, 나와(박지만은 나와 동갑이다.) 내 남편(남편은 박근영과 동갑이다)이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지, 너희 삼형제의 아버지가 휘두른 철권정치에 내 부모님과 내 남편의 부모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적어도 너는 그렇게 얼굴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